

32.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 9월 20일) 심사 유보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 9월 29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 및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부단장 등의 자격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진흥기금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안 제19조, 제19조의2)
- 관람료 및 광고료 수입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제5항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부단장 등의 자격을 정비하였고,
- 안 제6조제1항,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는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20조제4항, 안 제21조제3항은 관람료 및 광고료 수입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당초 시립예술단은 2022년 10월 1일 출범하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편입되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재단법인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연금 자격 상실 등 신분 변동 상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신분 변동이 없는 위탁 운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문제점을 방지하고,
- 시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및 단원 복지를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고 운용중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다만, 당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시 방침은 통합 목적은 달성하면서 고용승계 등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므로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바람직해 보이나, 향후 출범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음.
- 또한, 대구시립예술단 위탁도 통합과정의 일환으로 면밀한 검토나 용역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조치로 보일 수 있으므로, 그간 대구시의회에서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했던 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겸직, 기량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통합으로 시립 미술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신분이 박탈되고 민간 계약직으로 전환됨.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시립예술단과 적용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시립예술단은 법에 의해 기간이 정함이 없는 시 소속 근로자로 정규직이라 볼 수 있음.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서 들어오는 분이며, 원칙적으로 직위가 없을 때 해임이 원칙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고용을 승계하겠음.
만일 본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데,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으로 바뀔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동의 없이 민간 이전으로 시립 예술단원의 고용 승계를 강행했을 때, 예술단원은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고용 승계에 있어 시립예술단은 공무원 연금 유지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요구 사항은 있는지? 약자가 피해 보는건 없는지?	진흥원 통합 관련, 기존 재단의 직장협의회 또는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별다른 이견없이 진흥원의 큰 틀에 따라 혁신에 참여하겠다는 답변 받음.
지금도 시립예술단의 복무 겸직 문제가 계속 지적 되는데, 조례 개정으로 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관리가 되는지?	조례 개정에 따라 진흥원에 시립예술단을 위탁하는 경우 진흥원장이 예술단의 부단장으로 임명되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예술단을 감독할 수 있고, 노조와 협약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송 우려가 있더라도 연말까지 징계 규정을 개정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